

# 여가생활만족도에 관한 인과관계분석

—여가생활 참여도, 여가시간, 여가비용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Causal effect on Leisure Life Satisfaction

—Focused on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leisure time and leisure expenditure—

경성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대 학 원 이 정 연  
경성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시간강사 심 미 영  
경성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김 영 숙

Dept. of Home Management, Kyungsoo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 Yi, Jung Yeon*

Dept. of Home Management, Kyungsoong University

*Lecturer : Sim, Mi Young*

Dept. of Home Management, Kyungsoong University

*Professor : Kim, Yeong Sook*

### 〈 목 차 〉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 causal effect on the housewife's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leisure time, leisure expenditure and leisure life satisfaction. Data was collected 249 housewives in Pusan. Data were analys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one-way Anova, multiple regression, Pearson's correlation and path analysis.

The main findings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and economic variables. Physical typ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when housewife was 30's and unemployed, size of family was 3 and 4, age of the lastborn child was under 6, occupation of husband was professionals and technicians, educational attainment of housewife was under highschool graduate, pattern of housing was collective, income was high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that occupation of husband was professionals and technicians, educational attainment of housewife was over junior college graduate, pattern of housing was collective, income was higher in self-delveloping type. restful typ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when housewife was 40's, age of the lastborn child was under 13-18, educational attainment of housewife was under highschool graduat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that housewife was unemployed in home-oriented typ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that housewife was 30's and unemployed, size of family was 4, age of the lastborn child was under 6, occupation of husband was market and sales worker, educational attainment of housewife was over junior college graduate, pattern of housing was collective in time-spending type.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leisure time, leisure expenditure and leisure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and economic variables. Leisure tim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when housewife was unemployed, age of the lastborn child was under 13-18, occupation of husband was service, educational attainment of housewife was under highschool graduate, income was higher. Leisure expenditur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when housewife was 30's, size of family was under 3, age of the lastborn child was under 6, occupation of husband was senior officials and manager, educational attainment of housewife was over junior college graduate, pattern of housing was collective, income was over 5,000,000 w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that housewife was unemployed in leisure life satisfaction. Third, casual effect was path analysed according to path model. Employment and unemployment of housewife, income and occupation of husband (product & transport equipment operator) had an effect on phycial type. Age of housewife, employment and unemployment of housewife and occupation of husband (product & transport equipment operator) had an effect on children-concerned type. Age of housewife had an effect on social-concerned type. Education of husband, income, age of lastborn child and occupation of husband( professor and teacher) had an effect on self-developing type. Age of lastborn child, employment and unemployment of housewife and occupation of husband(product & transport equipment operator) had an effect on children-concerned type. Age of lastborn child and children number had an effect on religious-social type. Employment and unemployment of housewife had an effect on home-oriented type. Age of housewife, education of husband had an effect on time-spending type. Restful type, employment and unemployment of housewife, and occupation of husband(service) have an effect on leisure time. Income, leisure time, self-delveloping type, children concerned type and occupation of husband(senior officials and manager) had an effect on leisure expenditure. Leisure expenditure, self-delveloping type, employment and unemployment of housewife, income had an effect on leisure life satisfaction.

## I. 문제의 제기

여가는 휴식이나 노동력 재생산 및 자기실현의 기능을 하여 그 자체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여가의식에 관한 조사에서 일반적인 경향이 여가를 중시하고 젊은 연령층일수록 여가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산업경제연구원, 1985)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1980년대 후반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노동부, 1990),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감소하면서 주5일 근무업체도 증가하고 있다. 주부의 경우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1981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여가시간은 증가하고 있다(한국방송공사, 1995).

1993년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30년간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수지변화에 따르면 1963년에 0.6%에 불과하던 교양·오락비 비중이 1992년에는 소비지출 중 4.7%로 증가하였고(통계청, 1993), 1995년에는 5.0%를 차지하였다(통계청, 1995).

그리고 우리나라 14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일, 여가생활, 가족생활, 지역사회생활의 4가지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고(한국산업경제연구원, 1985), 여가활용에 대한 불만족이 1990년에는 45%, 1993년에는 36.1%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1995).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우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여가활동이 양적으로는 팽창한 반면, 여가생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여가활동의 질적 측면에서는 수준이 향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가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시간, 여가비용,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참여도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부들의 여가활동유형을 분류하고, 인구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라 여가활동 참여도, 여가시간, 여가비용, 여가생활 만족도를 분

석하고, 또한 여가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경제적 변인, 여가활동 참여도, 여가시간, 여가비용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여 주부들이 여가생활을 보다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여가생활 만족을 높임과 동시에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여가활동 참여도

#### 1) 여가활동 유형분류

참여빈도를 근거로 여가활동의 유형을 분류한 선행연구를 보면 조사대상, 제시되는 활동의 종류 및 수에 따라 다양한 활동으로 분류된다.

Allen과 Buchanan(1982)은 여가활동 참여도에 대한 자료와 함께 여가활동에 대한 흥미도 조사하여 두가지 자료로 여가활동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두 자료에서 유사한 활동요인이 분류되었는데 이들 요인은 실외 능동적 활동, 운동, 취미, 가정적 활동, 사교적 교체, 기계 사용활동, 자연관련활동이다.

신문영(1984)은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를 기초로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시청각 레저활동, 대중오락활동, 사교적 활동, 가정지향적 활동, 비사교적 활동, 무취미적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백주현(1990)은 자기개발적 활동, 가정지향적 활동, 휴양적 활동, 오락신체적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김외숙(1991)은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 참여빈도를 기준으로 여가활동의 유형을 자기개발활동, 가정지향형활동, 종교 사회참여활동, 사교활동, 소일활동의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홍성희(1991)는 주부의 여가활동 참여도를 기준으로 자기개발적 여가활동, 가정지향적 여가활동, 시간소일적 여가활동, 사교적 여가활동, 자녀중심적 여가활동의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2) 여가활동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1) 연령

많은 연구에서 연령에 따라 주로 참여하는 여가활

등의 종류나 활동별 참여빈도에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서울의 비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이현주(1985)의 연구에서는 교제활동, 자기개발활동, 휴식·오락활동에 대하여 참여도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백주현(1990)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연령이 젊을수록 전반적인 여가활동 참여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김외숙(1991)의 연구에서는 가정지향활동, 종교·사회참여활동, 사교활동이 연령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 (2) 막내자녀 연령

여가는 가사노동과 같은 의무적인 활동과 경쟁관계에 있으며, 특히 자녀양육은 주부의 여가활동 참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Nickols 등(1983)은 자녀양육을 포함한 가사노동시간이 주부의 여가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녀 가운데서도 막내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주부의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나 사회계층 등 경제적인 척도보다는 가사노동자로서의 시간이 더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 (3) 교육수준

교육수준은 가족여가활동의 필요성 인식과 참여빈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외숙, 1977). 이현주(1985)는 비취업주부의 학력이 자기개발활동, 건강유지·향상활동, 종교·사회참여활동영역에 대한 참여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백주현(1990)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기개발적 여가활동과 오락 및 신체적 여가활동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김외숙(1991)과 홍성희(1991)의 연구결과에서 볼 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기개발활동과 가정지향활동에서의 참여도는 높게 나타난 반면, 소일활동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 (4) 남편의 직업

우리나라 비취업주부의 자기개발활동영역에 대한 참여도도 남편의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외숙, 1993). 지영숙(1975)의 연구에서도 남편의 직업이 일반사무직인 주부의 여가시간이 가장 많았으며, 전문직, 공무원, 상업, 공업,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또한 남편 직업이 공무원과 사무직인 주부는 신문·잡지의 이

용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TV이용율은 상업과 공업종사자를 남편으로 둔 주부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안동선(1982)의 연구에서는 남편이 회사원인 주부가 남편과 여가시간을 같이 보내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5) 주부의 취업 유·무

김외숙(1991)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개발활동, 가정지향활동, 종교·사회활동, 사교활동 등 모든 여가활동에 있어서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에 비해서 참여도가 낮게 나타났다.

#### (6) 소득

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한 여러 나라 연구에서 소득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비취업주부의 여가활동 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소득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여가생활은 장방신(1985)의 연구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지향적인 여가생활이 더 많았고, 백주현(1990)의 연구에서도 가정지향적 여가활동, 자기개발적 여가활동, 오락 및 신체적 여가활동에 있어서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다.

#### (7) 주택유형

주거형태는 환경적인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는 여가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Murphy, 1981).

장방신(1985)의 연구에 따르면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주부들이 보다 개인지향적인 여가생활을 많이 하고 있었으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부들이 가정외의 여가활동을 할 때 가족과 함께 한다는 주부가 많았다. 백주현(1990)의 연구에서도 집합주택에 거주하는 주부들이 오락 및 신체적 여가를 제외한 가정지향적, 자기개발적, 휴양적 여가활동에 더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희(1991)의 연구에서는 자기개발적 활동만이 차이를 보였는데 집합주택에 거주하는 주부들이 참여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 2. 여가시간과 여가비용

### 1) 여가시간과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경미·황덕순(1990)의 연구에 의하면 적극적인 여가에는 1.2시간, 소극적인 여가에는 4.7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과 1990년 도시주부의 생활시간 비교에 관한 임정빈·임혜경(1992)의 연구에서도 적극적인 여가시간에 비해 소극적인 여가시간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여가는 평일과 휴일 0.6시간이었고, 소극적인 여가는 평일 3.4시간, 휴일 4.2시간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시간 조사에서 주부의 여가시간은 평일 5시간 55분, 토요일은 6시간 6분, 일요일은 6시간 8분으로 1990년과 비교하여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한국방송공사, 1996)

Gronau(1976)의 연구에 의하면 부인의 임금의 증가는 여가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남편의 임금의 증가는 부인의 여가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민경애 등(1985)에 따르면 물리적인 환경요인보다는 시간관리능력에 따라 여가시간에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한경미(1991)의 연구에서는 막내자녀연령이 낮을수록 주부의 여가시간은 감소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시간은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승미(1996)는 맞벌이 부부의 여가시간에 관한 연구에서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평일의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거의 없었고, 일요일의 여가시간에 주부의 교육수준과 남편의 소득이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여가비용과 영향을 미치는 변인

1963부터 1982년까지 교육·교양·오락비를 분석한 윤정혜(1984)의 연구에서 도시가계와 농촌가계의 교육·교양·오락비는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6년에 10.9%를 차지한 교육·교양·오락비는 1995년에는 14.4%로 증가하였다. 1995년도 가구당 월평균 교양·오락비 지출에서 2.3%가 교양·오락서비스비에 지출되었다. 이는 여가선용과 관련한 비용의 지출증가로 94년에 비해 20.4%나 증가한 것이다.

Talbot(1989)는 여가서비스비 지출에 관한 연구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을 소유하고, 도시가구 거주이고,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여가서비스 지출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 김영숙(1989)의 연구에서는 총월수입, 부인의 직업, 가족수가 교육·교양·오락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민(1992)은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선택재 소비지출구조를 분석한 연구에서 교양·오락비를 비롯한 외식, 일반가구, 개인교통 등으로 구성된 선택재의 소비지출이 가계소득, 가구주의 교육수준, 주택소유형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 3. 여가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단독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가분야를 생활만족도의 하위영역으로 파악하였다.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을 생활의 질과 지역사회 생활의 질 및 정신건강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식하여, 김외숙(1991)의 연구에서는 여가만족은 여가활동의 참여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ampbell 등(1976)의 연구에서도 여가에 대한 만족은 전반적인 행복과 가장 강력한 관련을 갖는 단일영역으로 나타난 바 있다.

장방신(1985)의 연구에서는 TV 시청, 라디오 청취, 휴식, 수면, 독서, 가족과 대화, 요리, 뜨게질, 꽃꽂이 등의 가정내 여가생활에 대해서 38.7%가 만족하고 친구 친척만남, 방문, 쇼핑, 친목회, 종교단체활동, 운동, 외식 등의 가정외 여가에 대해서는 44.5%가 만족하고 있다고 하여 주부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이 그다지 높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홍성희(1996)의 연구에서는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을 여가활동의 투입요소로 파악한 결과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김순미·홍성희(1997)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여가비는 여가생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이 나타난 반면 부인의 여가비는 여가만족에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여가활동 참여

도, 여가시간, 여가비용이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파악된다. 홍성희(1996)의 연구에서는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을 여가활동을 위한 투입요소로 파악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을 여가활동 참여의 산출결과로서 파악하여 여가활동 참여도, 여가시간, 여가비용, 여가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경제적 변인과의 관계를 인과적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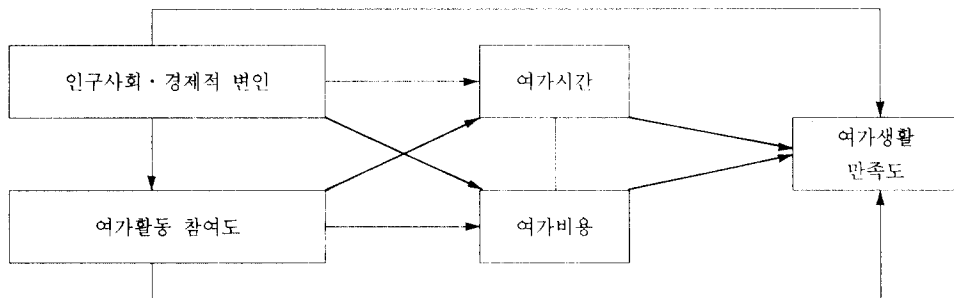
### Ⅲ.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인구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라 여가활동 참여도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 2) 인구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라 여가시간, 여가비용, 여가생활 만족도는 차이가 있는가?
- 3) 여가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경제적 변인, 여가활동 참여도, 여가시간, 여가비용의 상대적 영향력과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경로모형

#### 2. 조사도구 및 변인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설문지로서 여가생활 참여도, 여가시간, 여가비용, 여가생활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다. 여가생활 참여도는 홍성희(1991),

김외숙(1991) 등의 연구를 참고로 총 26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안한다”의 1점에서부터 “거의 매일 한다”의 5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였으며, Cronbach  $\alpha = 0.79$ 로 나타났다.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에 관한 문항은 각 여가활동에 참여한 시간과 비용을 측정된 것으로 여가시간은 주부의 하루평균 여가시간을 분단위로 측정하였으며, 여가비용은 월평균 비용을 측정하였다.

여가생활 만족도에 관한 문항은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 여가시간, 여가비용,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결정권 등 5개 영역을 “매우 불만족한다”의 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의 5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였으며 Cronbach  $\alpha = 0.84$ 로 나타났다.

인구사회·경제적 변인으로는 주부의 연령, 가족수, 막내자녀의 연령, 남편의 직업, 주부의 취업유무, 주부의 교육수준, 주택유형, 소득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방법은 <표 1>과 같다.

####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1996년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부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1996년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남구, 해운대구, 중구, 동래구에 있는 중·고등학교 7곳을 선정하여 사전에 예비지시를 받은 교사가 학생들을 통해 배부하여 어머니가 응답을 하였다. 총 350부를 배

〈표 1〉 변인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인	정의 및 측정방법
1. 종속변인 여가생활만족도: 여가활동만족(a) 여가시간만족(b) 여가비용만족(c) 배우자와의 여가시간만족(d) 여가 의사결정만족(e)	$(a)+(b)+(c)+(d)+(e)$ 1=매우불만족 3=그저그렇다 5=매우만족 1=매우불만족 3=그저그렇다 5=매우만족 1=매우불만족 3=그저그렇다 5=매우만족 1=매우불만족 3=그저그렇다 5=매우만족 1=매우불만족 3=그저그렇다 5=매우만족
2. 매개변인 1) 여가시간 2) 여가비용	개방형 응답 개방형 응답
3. 독립변인 1) 인구사회·경제적 변수 주부의 연령 가족 수 막내자녀연령 남편의 직업(* 회귀분석시 Dummy로 처리)  주부의 취업유무 주부의 교육수준 주택유형 소 득  2) 여가활동 참여도	개방형 응답 개방형 응답 개방형 응답 1=전문기술직 2=교원 3=행정 및 관리직 4=사무직 5=판매직 6.서비스직 7=생산직 8= 기타 및 무직(준거집단) 0=취업 1=비취업 0=고등학교졸이하 1=전문대졸이상 0=단독주택 1=집합주택 1=110만원 이하 2=110-200만원미만 3=200-299만원 미만 4=300-400만원미만 5=400-500만원미만 6=500만원 이상 5점 Likert 척도로 총27문항

부하여 249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 pc+ program을 사용하였다. 먼저 여가활동을 분류하기 위하여 여가활동 참여도의 26문항을 Varimax 방식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Eigen value 1.0이상으로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부록1 참조) 여가활동 유형은 신체적 활동, 자녀중심적 활동, 사교적 활동, 자기개발적 활동, 휴양적 활동, 종교사회적 활동, 가정지향적 활동, 시간소일적 활동으로 분류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여가활동 참여도, 여가시간, 여가비용, 여가생활 만족도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

다.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에 접근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였으며 사후검증으로 Duncan Multiple Range-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의 여가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모형에 따라 stepwise 방식에 의한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족도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 1. 기초자료의 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집 단	N	%	변 인	집 단	N	%
주 부 의 연 령	30대	136	54.6	주부의 취업유무	취 업	84	34.9
	40대	113	45.4		비 취 업	157	65.1
	Total	249	100.0		Total	241	100.0
가 족 수	3명 이하	36	14.5	주부의 교육수준	고졸 이하	117	47.2
	4명	129	51.8		전문대졸 이상	131	52.8
	5명	84	33.7		Total	248	100.0
	Total	249	100.0				
막내자녀 연 령	6세 이하	101	40.6	주택유형	단독주택	73	30.0
	7-12세	43	17.2		집합주택	170	70.0
	13-18세	94	37.8		Total	243	100.0
	19세 이상	11	4.4				
	Total	249	100.0				
남 편 의 직 업	전문기술직	39	15.9	소득	110만원 미만	15	6.2
	교 원	23	9.4		110~200만원 미만	76	31.3
	행정 및 관리직	30	12.2		200~300만원 미만	72	29.6
	사 무 직	58	23.7		300~400만원 미만	39	16.0
	판 매 직	41	16.7		400~500만원 미만	20	8.2
	서비스직	5	2.0		500만원 이상	21	8.6
	생 산 직	32	13.2		Total	243	100.0
	기타 및 무직	17	6.9				
	Total	245	100.0				

주부의 연령에서는 30대 주부가 54.6%로 40대 주부보다 많았다. 가족수는 4명인 가족이 51.8%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막내자녀연령은 6세 이하가 가장 많았다. 남편의 직업은 사무직이 가장 많았으며, 주부는 비취업이 65.1%를 차지하였다. 주부의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이상이 52.8%이며, 주택유형은 집합주택 거주자가 70%를 나타내었다. 소득은 110~300만원이 60.9%를 차지하였다.

여가활동 참여도, 여가시간, 여가비용, 여가생활 만

##### 2. 인구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도

인구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라 여가활동 참여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 1) 신체적 활동

신체적 활동의 참여도는 주부의 연령이 30대인 집



〈표 3〉 여가활동 참여도, 여가시간, 여가비용, 여가생활 만족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 인		M	S.D
여가활동 참 여 도	신체적 활동	52.68	15.00
	자녀중심적 활동	64.80	16.14
	사교적활동	60.88	10.77
	자기개발적 활동	43.74	15.82
	휴양적 활동	62.22	16.89
	종교·사회적 활동	46.01	18.85
	가정지향적 활동	51.40	14.93
	시간소일적 활동	66.30	18.26
여가시간	214.29(약 3시간 34분)	114.21	
여가비용	148,661 원/월	140,538	
여가생활만족도	60.55	15.28	

단이 40대인 집단보다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족수에 따라서는 3인 혹은 4인 가계에 비하여 5인 이상의 가계에서 신체적 활동에 대한 참여도는 낮게 나타났다. 막내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막내자녀의 연령이 6세 이하인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3~18세인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19세 이상인 집단에서 다시 높아졌다. 이는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시기에는 자녀 양육과 교육의 부담으로 참여도가 낮지만 부담감에서 벗어나는 시기에는 시간을 보다 더 가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편의 직업에 따라서도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편의 직업이 행정 및 관리직과 전문기술직에 속하는 집단이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소득은 신체적활동의 참여도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 소득이 높을수록 참여도가 높게 나타나 신문영(1984)의 소득이 개인의 여가생활 참여에 가장 큰 결정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고 한 연구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

취업 유·무에 있어서도 비취업주부가 취업주부에 비해서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김외숙(199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에 비해서 여가시간이 적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Settle 등(1978)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은 여가활동 참여를 가장 잘 예측해 주는 변수로 확인된 바 있고, 백주현(1990)은 신체적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주부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현주(1985)의 연구에서도 건강유지 향상을 위한 활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강유지 향상을 위한 활동이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활동에 포함되므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주택유형에 있어서 아파트와 같은 집합주택 거주자가 참여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신체적 활동의 참여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녀중심적 활동

자녀중심적 활동의 참여도는 주부의 연령에 30대인 집단이 40대인 집단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고, 가족수가 적을수록 자녀중심적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홍성희(199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주부가 상대적으로 참여할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편의 직업에 따라서는 행정 및 관리직과 전문기술직에서 자녀중심적 활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에 있어서도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중심적 활동의 참여도는

〈표 4〉 인구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도

변인	집 단	신체적 활동 D	자녀중심 적활동 D	사교적 활동 D	자기개발 적활동 D	휴양적 활동 D	종교사회 적활동 D	가정지향 적활동 D	시간소일 적활동 D
주부의 연령	30대	56.26 A	70.81 A	59.96	45.46	58.57 B	42.44	51.81	70.07 A
	40대	48.47 B	56.71 B	62.02	41.76	66.53 A	50.17	50.90	61.80 B
	F-value	15.88***	51.41***	2.17	3.14	12.53***	10.56**	.21	12.99***
가족 수	3명 이하	53.71 AB	69.06 A	58.08	45.68	62.22	48.33	48.82	64.00 AB
	4명	55.81 A	66.39 A	61.17	44.77	61.34	46.08	53.72	70.16 A
	5명	47.74 B	60.46 B	61.06	41.36	63.37	44.87	49.10	61.34 B
	F-value	7.02**	4.53*	1.37	1.38	.32	.42	2.05	6.38**
막내 자녀 연령	6세 이하	56.09 A	72.11 A	59.38	44.02	57.59 B	39.48	51.11	70.30 A
	7~12세	55.78 A	66.41 B	60.73	48.50	56.57 B	49.51	51.58	68.29 A
	13~18세	47.28 B	54.87 C	62.89	41.07	69.31 A	51.38	51.36	63.04 AB
	19세 이상	55.63 A	65.00 B	58.63	45.33	64.00 AB	44.54	53.33	50.00 B
F-value	6.25***	21.06***	1.83	2.10	9.44***	7.46***	.07	5.99***	
남편 의 직업	전문기술직	58.52 A	69.86 A	60.39	50.28 A	57.90	46.57	51.40	68.10 A
	교원	53.90 A	67.39 AB	58.26	51.81 A	57.10	47.61	52.12	66.52 A
	행정 및 관리직	58.92 A	70.00 A	63.50	44.82 AB	63.07	46.55	53.33	70.33 A
	사무직	53.63 A	65.20 AB	60.00	44.35 AB	64.39	44.12	52.82	65.43 AB
	판매직	50.27 A	64.87 AB	61.53	39.23 B	58.91	42.68	48.66	70.73 A
	서비스직	46.40 B	63.75 AB	59.00	37.33 B	54.66	42.00	49.33	56.00 B
	생산직	41.37 B	50.17 C	61.00	33.77 B	69.76	45.93	48.73	63.54 AB
	기타 및 무직	54.00 A	62.14 AB	64.00	47.50 AB	68.09	55.88	56.86	53.75 B
F-value	4.61***	4.90***	.72	4.54***	2.01	1.01	.79	2.11*	
주부 취업 유무	취업	44.78 B	57.73	57.26 B	37.43 B	55.09	41.81	44.52 B	58.72 B
	비취업	52.52 A	65.00	63.80 A	40.00 A	59.42	50.00	54.66 A	70.40 A
	F-value	4.89*	3.25	5.94*	.44	1.31	4.43*	8.84**	6.06*
주부 의 학력	고졸 이하	47.21 B	57.27 B	62.40	40.30 B	67.34 A	48.87	51.72	61.75 B
	전문대졸 이상	57.17 A	70.72 A	59.48	46.89 A	57.89 B	43.25	50.98	70.39 A
	F-value	27.27***	45.87***	4.38	10.21**	17.96***	5.46*	.14	14.17***
주택 유형	단독주택	47.80	59.67 B	62.23	40.39	64.64	49.58	49.25	61.54
	집합주택	54.57	66.74 A	60.35	45.13	61.15	44.50	52.25	68.25
	F-value	9.44**	8.92**	1.48	4.30*	1.96	3.72	1.94	6.94**
소득	110만원 미만	41.53 B	58.84 B	59.09	35.23 B	60.00	50.66	50.66	59.28
	110~200만원 미만	48.94 B	61.13 B	59.38	40.47 B	65.70	44.53	50.18	63.15
	200~300만원 미만	52.90 B	62.81 B	62.24	44.62 AB	63.57	47.28	50.46	67.42
	300~400만원 미만	56.44 AB	69.73 A	61.84	46.48 AB	60.54	43.94	52.28	68.91
	400~500만원 미만	58.00 A	68.15 A	61.50	47.33 AB	55.68	45.78	50.37	65.26
	500만원 이상	62.60 A	76.00 A	60.47	51.00 A	55.78	45.00	58.59	75.23
	F-value	5.58***	4.28**	.62	2.81*	1.86	.42	1.09	2.13

D: Duncan Multiple Range test:  $p < .05$  수준에서 유의성 검증\*  $p < .05$ , \*\*  $p < .01$ , \*\*\*  $p < .001$

높게 나타나 직업이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의 하나이므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리고 막내자녀 연령에 따라서도 연령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중심적 활동은 어린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주부의 연령 및 막내자녀의 연령이 어린 자녀가 있는 집단이 이 유형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주부의 학력이 높고 집합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중심적 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 3) 사교적 활동

사교적 활동의 참여도는 비취업주부가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주부의 경우 시간에 대한 제약성이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시간의 여유가 많은 비취업주부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 4) 자기개발적 활동

자기개발적 활동의 참여도는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기개발적 활동 참여도가 높게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기개발적 활동에 많이 참여한다고 밝혀진 장방신(1985), 백주현(1990), 김외숙(1991)의 결과와 일치한다. 남편의 직업에 따라서 전문기술직과 교원가계에서 높게 나타났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자기개발적 활동참여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자기개발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장방신(1985), 김외숙(1991), 홍성희(1991)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집합주택에 거주 하는 경우 자기개발적 활동의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 5) 휴양적 활동

휴양적 활동의 참여도는 주부의 연령이 30대인 집단보다는 40대인 집단에서에서 높게 나타났다. 막내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는 막내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막내자녀의 연령이 13~18세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교육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는 시기에 막내자녀가 있는 관계로 특별히 경제적, 시간적, 공간적인 요소가 필요하지 않은 휴양적 활동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수준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현저한 차이가 있었는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휴양적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주부들이 이전의 여가경험이나 여가참여를 위한 정보획득이 제한되어 있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보다는 수동적이고 정적인 활동으로 소일한다고 한 홍성희(1991)의 결과와 일치한다.

### 6) 종교·사회활동

종교·사회활동의 참여도 주부의 연령이 40대인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종교·사회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진다고 한 김외숙(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막내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막내자녀의 연령이 6세 이하인 집단이 가장 낮았고 13~18세인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입시를 앞둔 자녀로 인해서 평상시보다는 더 자주 종교활동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김외숙(1991)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종교·사회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가 전문대졸업 이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관계망으로서 종교·사회결속력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이 사회모임에 참여하려는 태도가 높아서 종교·사회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부의 취업유·무에 있어서는 취업주부보다는 비취업주부가 높게 나타났다.

### 7) 가정지향적 활동

가정지향적 활동의 참여도는 비취업주부가 취업주부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김외숙(1991)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 8) 시간소일적 활동

시간소일적 활동의 참여도는 주부의 연령이 30대인 집단이 자녀수가 적을수록 막내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비취업주부에서 참여도

가 높게 나타났다.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 3. 인구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른 여가시간, 여가비용, 여가생활 만족도

인구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라 여가시간, 여가비용, 여가생활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 1) 여가시간

여가시간의 경우 막내자녀연령이 많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막내자녀연령이 13~18세인 집단이 여가시간이 가장 많았고 확령전 아동이 막내자녀인 경우 여가시간이 가장 적었는데, 이는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부의 여가시간이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남편의 직업에 따라서도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편의 직업이 서비스직인 집단이 여가시간이 가장 많았고 판매직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부의 교육수준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여가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시간이 많다고 한 한경미(1996)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 2) 여가비용

여가비용은 30대 집단이 40대 집단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집단은 가족수와 자녀수가 적을수록 여가비용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막내자녀연령이 높아질수록 여가비용도 적어지다가 19세 이상인 집단에서 다시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막내자녀가 취학 중인 7~18세에는 사교육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가계에 여유가 별로 없어 주부의 여가비용이 낮고 막내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다소 여유가 생겨 여가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편직업에 있어서는 행정 및 관리직이 여가비용이 가장 많게 나타났고 전문기술직, 서비스직, 교원, 판매직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산직의 경우가 가장 낮

았다. 주부의 교육수준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비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여가비용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여가서비스 지출이 많다고 한 Talbot(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주택유형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집합주택에 거주하는 주부가 여가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여가생활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에 있어서 주부의 취업 유·무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부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주부의 취업유형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냈다. 비취업주부가 취업주부보다 여가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소득, 가족생활주기, 가족수, 주택유형, 종교에 따라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정도에서 종교를 제외하고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힌 장방신(1985)의 연구결과와 같다.

#### 4. 여가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들의 인과관계분석

여가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경로모형에 따라 인구통계 및 사회경제적 변인이 여가생활 참여도에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신체적 활동의 참여도에는 주부의 취업 유·무, 소득, 남편의 직업이 생산장비직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주부가 취업하지 않을수록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신체적 활동에 대한 참여는 높게 나타났으나 남편의 직업인 생산장비직은 부적인 영향을 나타내어 기타 및 무직자에 비하여 오히려 신체적 활동에의 참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변인에 의한 신체적 활동의 참여도를 23.7% 설명하고 있다.

〈표 5〉 인구사회·경제적 변인 따른 여가시간, 여가비용, 여가생활 만족도

변 인	집 단	여가시간 (시간/일)	D	여가비용 (원/월)	D	여가생활 만족도	D
주 부 의 연 령	30대	3시간26분		170,834	A	61.17	
	40대	3시간43분		124,383	B	59.74	
	F-value	1.31		6.48**		0.53	
가 족 수	3명 이하	3시간52분		220,156	A	62.30	
	4명	3시간33분		157,740	B	60.96	
	5명 이상	3시간29분		110,518	C	59.12	
	F-value	0.52		7.62***		0.61	
막내자녀 연 령	6세 이하	3시간 9분	A	174,750	A	59.87	
	7~12세	3시간43분	AB	155,097	AB	61.71	
	13~18세	3시간58분	BA	117,651	B	60.91	
	19세 이상	3시간30분	B	172,500	A	58.54	
	F-value	3.15*		2.71*		0.22	
남 편 의 직 업	전문기술직	3시간34분	AB	195,921	A	63.47	
	교 원	3시간29분	AB	159,130	AB	59.45	
	행정 및 관리직	4시간15분	A	241,551	A	63.60	
	사무관련직	3시간13분	B	106,140	B	52.55	
	판 매 직	2시간55분	B	154,342	AB	56.39	
	서비스직	6시간42분	A	160,000	BC	59.20	
	생산, 장비직	3시간58분	A	68,866	BC	57.03	
	기타 및 무직	3시간40분	AB	135,941	AB	58.11	
	F-value	2.77**		5.48***		1.27	
주 부 의 취업유형	취 업	2시간35분		122,654		49.58	B
	비 취 업	3시간 7분		167,958		62.56	A
	F-value	1.22		1.98		13.13***	
주 부 의 교육수준	고졸 이하	3시간54분	A	124,072	B	59.89	
	전문대 이상	3시간17분	B	173,109	A	61.00	
	F-value	6.67*		7.24***		0.31	
소 득	110만원 미만	3시간53분		115,615	C	56.85	
	110~200만원 미만	3시간36분		107,357	C	61.15	
	200~300만원 미만	3시간27분		117,458	BC	59.83	
	300~400만원 미만	3시간17분		156,974	BC	59.07	
	400~500만원 미만	3시간39분		222,105	B	60.40	
	500만원 이상	3시간50분		350,000	A	67.20	
	F-value	0.41		15.23***		1.03	
주택유형	단독주택	4시간 3분	A	110,275	B	58.68	
	집합주택	3시간23분	B	166,204	A	61.26	
	F-value	6.49*		7.48**		1.42	

D: Duncan Multiple Range test: p < .05 수준에서 유의성 검증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여가생활 만족도의 경로모형에서 관련변인의 인과효과와 비인과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인과적 효과		비인과적 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신체적 활동 R <sup>2</sup> =.237 F=19.570***	주부의 취업 유·무	.253***	-	-.173	.080
	소득	.241***	-	.069	.310***
	남편의 직업(생산장, 비직)	-.142*	-	-.100	-.242**
자녀중심적 활동 R <sup>2</sup> =.317 F=29.592***	주부의 연령	-.316***	-	-.187	-.503***
	주부의 취업 유·무	.257***	-	-.100	.157*
	남편의 직업(생산, 장비직)	-.136*	-	-.237	-.373***
사교적활동 R <sup>2</sup> =.025 F=5.179*	주부의 연령	.158*	-	.002	.160*
자기개발적 활동 R <sup>2</sup> =.176 F=8.272***	남편의 학력	.231**	-	.022	.253**
	소득	.238**	-	-.056	.182*
	막내자녀의 연령	.203*	-	.224	-.021
	남편의 직업(교원)	.135*	-	.046	.181*
휴양적 활동 R <sup>2</sup> =.189 F=14.320***	막내자녀의 연령	.252***	-	-.056	.259**
	주부의 취업 유·무	.326***	-	-.119	.207**
	남편의 직업(생산, 장비직)	.182*	-	.096	.278***
종교사회적 활동 R <sup>2</sup> =.123 F=14.540***	막내자녀의 연령	.317***	-	-.010	.307***
자녀수	-.161*	-	.075	-.086	
가정지향적 활동 R <sup>2</sup> =.025 F=5.131*	주부의 취업 유·무	.158*	-	.038	.196*
시간소일적 활동 R <sup>2</sup> =.106 F=12.388***	주부의 연령	-.203**	-	-.160	-.363***
	남편의 학력	.169*	-	.102	.271**
여가시간 R <sup>2</sup> =.254 F=15.058***	주부의 취업 유·무	.243***	-	-.022	.221***
	남편의 직업(서비스)	.184**	-	-.005	.179
	남편의 직업(생산, 장비직)	-	.049	.104	.153*
	휴양적 활동	.286***	-	.081	.367***
여가비용 R <sup>2</sup> =.274 F=11.627***	소득	.281***	.041	.071	.393***
	주부의 연령	-	-.049	-.221	-.272**
	주부의 취업 유·무	-	.085	.102	.180
	남편의 직업(서비스)	-	.033	-.005	-.028
	남편의 직업(행정 및 관리)	.143	-	.083	.226**
	남편의 직업(교원)	-	.023	.043	.066
	남편의 직업(생산, 장비직)	-	-.012	-.207	-.219**
	자녀중심적 활동	.154*	-	.212	.366***
	자기개발적 활동	.173*	-	.116	.289***
	휴양적활동	-	.049	-.154	-.074
여가시간	.181**	-	.003	.184*	
여가생활 만족도 R <sup>2</sup> =.284 F=14.970***	소득	.192*	.180	-.356	.016
	주부의 취업 유·무	.223**	.054	.033	.310***
	주부의 연령	-	-.018	-.009	-.027
	막내자녀의 연령	-	.080	-.021	.059
	남편의 직업(서비스직)	-	.013	.015	.028
	남편의 직업(행정 및 관리)	-	.088	.001	.226**
	남편의 직업(교원)	-	.043	-.077	-.034
	남편의 학력	-	-.018	-.012	.008
	자녀중심적 활동	-	.058	.232	.290***
	자기개발적 활동	.228**	.091	.007	.326***
	휴양적 활동	-	.018	.137	.155*
	여가시간	-	.068	.136	.204**
	여가비용	.376***	-	-.014	.362***

\* p &lt; .05, \*\* p &lt; .01, \*\*\* p &lt; .001

\* Dummy변인: 1. 주부의 취업 유무:준거집단(유)  
2. 남편의 직업:준거집단(기타 및 무직)

자녀중심적 활동의 참여도에는 주부의 연령, 주부의 취업 유·무, 남편의 직업이 생산장비직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 중 주부의 연령과 남편의 직업이 생산장비직은 부적인 영향을 나타내어,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주부가 취업할수록 남편이 생산장비직에 종사할수록 자녀중심적 활동에의 참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31.7%로 나타났다.

사교적 활동의 참여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주부의 연령으로 나타나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사교적 활동에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설명력은 2.5%로 나타났다.

자기개발적 활동의 참여도에는 남편의 학력, 소득, 막내자녀의 연령, 남편의 직업이 교원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막내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남편의 직업이 교원일수록 자기개발적 활동에 대한 참여는 높게 나타났다. 설명력은 17.6%로 나타났다.

휴양적 활동의 참여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막내자녀의 연령, 주부의 취업 유·무, 남편의 직업이 생산장비직으로 나타나 막내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비취업주부일수록, 남편의 직업이 생산장비직일수록 휴양적활동에 대한 참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18.9%였다.

종교사회적 활동의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막내자녀의 연령과 자녀수가 나타났으며, 막내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종교사회적 활동에의 참여도는 높게 나타났다. 설명력은 12.3%로 나타났다.

시간소일적 활동의 참여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주부의 연령, 남편의 학력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연령은 부적인 영향을 나타내어 젊은층일수록,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시간소일적 활동에의 참여도는 높게 나타났다. 설명력은 10.6%였다.

주부의 여가시간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에서 주부의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휴양적 활동, 주부의 취업 유·무, 남편직업은 서비스직으로, 휴양적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높을수록, 취업주부 보다 비취업주부일수록, 남편의 학력은 높을

수록, 남편의 직업은 기타 및 무직에 비하여 서비스직일수록 주부의 여가시간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변인에 의한 여가시간의 설명력은 25.4%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직업이 생산장비직은 직접적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휴양적 활동의 참여를 경유한 간접적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양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회귀식에서 생산장비직일수록 휴양적 활동에 참여정도가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여가시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된다.

여가비용에 직접적 영향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소득, 여가시간, 자기개발적 활동, 자녀중심적 활동, 남편의 직업이 행정관리직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에 의한 여가비용의 설명력은 27.4%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수록,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자기개발적 활동과 자녀중심적 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높을수록, 남편의 직업이 행정관리직일수록 여가비용에 대한 지출은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주부의 취업 유·무, 남편의 직업이 서비스직, 교원, 생산장비직, 막내자녀의 연령, 휴양적 활동은 여가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간접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 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여가비용, 자기개발적 활동, 주부의 취업 유·무, 소득으로 나타나 여가비용에 대한 지출이 높을수록 자기개발적 활동에 참여할수록, 취업주부 보다는 비취업주부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들 변인에 의한 여가생활만족도의 설명력은 28.4%로 나타났다.

주부의 여가생활 참여도,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을 매개로 한 여가생활 만족도의 총경로효과를 보면 주부의 취업 유·무, 자녀중심적 활동, 자기개발적 활동, 여가시간, 여가비용은 정적 총효과를 나타내었다. 소득은 총효과는 유의하지 않지만 간접적 효과와 부적인 비인과적 효과로 인하여 오히려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주부의 취업 유·무와 자기개발적 활동은 여가생활만족도에 직접적 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적 효과도 나타나 비취업주부일수록 그리고 자기개발적 활동에 참여할수록 여가

시간 많고, 여가비용에 대한 지출을 많이함으로써 여가생활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가생활 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남편의 직업이 서비스직과 남편의 직업이 행정관리직은 여가시간과 비용을 매개로 그리고 자녀중심적 활동과 여가시간은 여가비용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여가생활 만족도를 높여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주부의 여가활동 참여도와 여가비용, 여가시간 및 여가생활 만족도와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유형에서는 신체적 활동에서는 주부연령은 30대 집단, 가족수는 3인·4인, 막내자녀연령은 6세 이하, 남편직업은 행정 및 관리직, 비취업주부, 고졸 이하 학력, 집합주택, 소득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녀 중심적 활동에서는 30대 집단, 3명 이하 가족수, 막내자녀 연령 6세 이하, 행정·관리직, 전문대졸이상 학력, 집합주택, 소득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나타났고, 사교적 활동에서는 비취업주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자기개발적 활동에서는 전문기술직 업종에서, 전문대 이상 졸업집단, 집합주택, 소득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나타났다. 휴양적 활동에서는 40대 집단, 막내자녀연령은 13~18세에서, 고졸 이하 학력집단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가정지향적 활동에서는 비취업주부일 때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시간소일적 활동에서는 30대 주부집단, 가족수가 4인인 집단, 6세 이하의 막내자녀연령, 판매직업, 비취업주부, 전문대졸 이상, 집합주택일 경우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인구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라 여가시간, 여가비용, 여가생활 만족도 분석에서 여가시간은 막내자녀연령이 13~18세, 남편의 직업이 서비스직, 비취업주부, 주부의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 집단, 소득이 많을수록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가비용은 30대 집단, 3명 이하 가족수, 막내자녀연령 6세 이하, 행정 및 관리직, 전문대 이상,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집

단, 집합주택일 때 유의하였다. 여가생활 만족도는 주부의 취업 유·무에 따라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여가생활 만족도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결과를 보면 신체적 활동은 주부가 취업할 경우, 소득이 많을수록 높았으며, 남편직업에서 생산장비직은 부적 효과를 나타내어 기타 및 무직자에 비하여 신체적 활동의 참여도는 낮게 나타났다. 자녀중심적 활동에서는 주부의 연령이 어릴수록, 주부가 취업할 경우에 높게 나타난 반면 남편직업이 생산장비직은 부적효과를 나타내어 기타 및 무직자에 비하여 신체적 활동의 참여도는 낮게 나타났다.

사교적 활동에서는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영향력이 높고, 자기개발적 활동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막내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휴양적 활동에서는 주부가 취업할수록, 막내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남편의 직업이 생산장비직일수록 영향력이 높았다. 종교사회적 활동에서는 막내자녀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영향력이 높게 나타나고, 가정지향적 활동에서는 취업주부일수록, 시간소일적 활동은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여가시간은 휴양적 활동에 참여할수록, 비취업주부일수록, 남편직업이 서비스직일수록 여가시간은 높게 나타났다. 여가비용은 소득이 높을수록,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자기개발적 활동에 참여할수록, 자녀중심적 활동에 참여할수록, 남편직업이 행정·관리직일수록 여가비용은 높게 나타났다. 여가생활 만족도는 여가비용이 많을수록, 자기개발적 활동에 참여할수록, 비취업주부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여가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가시간의 경우 여가생활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은 없지만 여가비용을 경유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여가활동 참여도에서, 자녀양육에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 생각되는 30대 주부집단이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아, 보다 여가활동에 가치를 두며 적극적으로 생활하고, 자기자신을 개발하는데 참여한다. 젊은 연령층의 주부집단을 위해 여가를 통해 자기개발



할 수 있도록 사회정책적인 건전여가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주부의 취업 유·무가 여가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여가생활 만족도가 낮아서,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장인 여가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소득이 높을수록 여가비용이 많아지므로, 이것이 곧 여가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므로 가정경제에서 소득의 원천을 다양화하여 가계소득을 향상시켜 여가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는 우선 조사대상자를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는 30대, 40대 주부만을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며, 또한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심리적 측면은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층, 지역적으로 중소도시, 농촌지역, 사회계층, 가족생활주기별 및 국가간의 여가활동실태를 비교분석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까지도 확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1) 광용자(1990), “취업주부의 레저선택행동에 관한 연구-기혼 여교사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경제기획원(1993), “도시가계연보 1992”.
- 3) 김광득(1991), 현대여가론-이론과 실제, 자유출판사.
- 4) 김길호(1985), “소비자 레저활동 선택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김문겸(1993), 여가의 사회학-한국의 레저문화, 서울: 한울아카데미.
- 6) 김순미·홍성희(1996), “여가비지출이 여가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3호.
- 7) 김영숙(1989), “한국가정의 가계소비유형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8) 김외숙(1977), “가족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조사연구-서울시 주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9) \_\_\_\_\_(1991),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0) \_\_\_\_\_·이기영·최은숙(1993), 가족자원관리,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 11) 노동부(1990), 노동통계연감 1989.
- 12) 민경애(1985), “주부의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의 실태와 지향에 관한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3) 백주현(1990), “여가선택행동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4) 신문영(1984), “레저선택행동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싸이코그래피접근법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5) 안동선(1982), “주부의 여가유형과 결혼만족도와 의 관계에 관한 연구-서울시에 거주하는 비취업주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6) 유영주(1983), 가족관계학, 교문사.
- 17) 윤정혜(1984), “도시 및 농촌가계의 소비지출구조의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권 2호.
- 18) 이승미(1996), “맞벌이부부의 여가시간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3호.
- 19) 이현주(1985), “주부의 여가활동유형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 임정빈·임혜경(1992), “1980년과 1990년 도시주부의 생활시간비교”, 대한가정학회지, 제30권 4호.
- 21) 장방신(1984), “서울시 주부들의 여가생활내용”,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2) 지영숙(1975), “한국 도시 주민의 여가생활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논문집, 21호 pp.23-41.
- 23) 통계청(1993), 도시가계조사 30년: 1963년~1992년.
- 24) \_\_\_\_\_(1995), 한국의 사회지표.
- 25) 한경미(1991), “취업주부의 시간사용과 영향요

- 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9권 3호.
- 26) 한국방송공사(1996), 1995년도 국민생활시간조사.
  - 27) 한국산업경제연구원(1985), “국민여가생활의 실태분석과 대책”, 한국관광공사.
  - 28) 홍성희(1991), “주부의 여가활동과 여가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9) Becker, G.S.(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Vol.75.
  - 30) Campbell, A., P.E.Converse & W.L. Rodgers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 Evaluation and Satisfaction”,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31) De Grazia, S.(1964), “Of Time, Work and Leisure”, New York: The Twentieth-century Fund.
  - 32) Dumazedier, J.(1967), “Toward a Society Leisure”, New York: The Free Press.
  - 33) Feldman, L.P. & J.Hornik(1981), “The Use of Time: An Intergrated Conceptual Model”,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17.
  - 34) Gronau, R.(1977), “Leisure, Home Pduction, and Work-The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Revisite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85, No.6, pp.1099-1123.
  - 35) Kaplan, M.(1960), “Leisure in America: A Social Inquiry”, New York: John Wiley & Sons.
  - 36) Kelly, J.R., “FREEDOM TO BE A New Sociology of Leisure”, New York, Macmillan.
  - 37) Matsushima, C.(1981), “Time-Input and Household Work-Output Studies in Japan: Present State & Future Prospect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 Home Economic*, Vol.5.
  - 38) Murphy, J.(1974), “Concept of Leisure Philosopical Implications”, Prentree-Hall, Inc.
  - 39) Neulinger, J.(1981), “TO LEISURE: An Introduction”, Allyn & Bacon.
  - 40) Parker, S.(1976), “The Sociology of Leisure”, International Publication Services.
  - 41) Pieper, J.(1952), “Leisure: The Basis of Culture”, New York: Pantheon Books, Inc.
  - 42) Settle, R.B., P.L.Alreck & M.A.Belch(1979), “Social Class Determinants of Leisure Activity”,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6, pp. 130-145.
  - 43) Talbot, M.N.(1989), “Households with Expenditures for Entertainment Services”, *Family Economic Review*, Vol.2(4).

〈부록 1〉 여가활동에 대한 요인행렬표

문항	요인							
	신체적	자녀 중심적	사교적	자기 개발적	휴양적	종교 사회적	가정 지향적	시간 소일적
헬스클럽, 사우나	.70	.11	.09	.00	-.04	-.05	.25	.03
운동	.62	-.02	.16	.14	.16	.10	.24	.09
가족과의 외식	.58	.25	.06	.26	-.02	-.01	-.18	.06
연극, 영화관람	.51	.30	-.20	.38	-.01	.08	-.02	.04
어린자녀와 놀아주기	.18	.79	-.04	-.02	-.04	-.23	.03	.03
가족과의 대화	.07	.66	.10	.09	.22	.20	.03	-.01
자녀의 예능지도	.34	.62	.04	.21	-.11	-.17	.17	.15
독서	.13	.50	-.30	.23	-.09	.35	-.09	.27
친구와의 교체	.20	-.02	.73	.09	.15	.11	.07	-.03
쇼핑	-.00	.02	.63	.26	.17	-.21	.05	.28
친척방문 및 내방	.13	.38	.56	-.16	-.03	.19	.07	-.20
동창회, 계모임, 친목회	.31	-.17	.52	.10	.11	.35	.09	-.20
강습이외의 취미활동	-.01	.08	.14	.76	.06	.01	.23	.00
취미강습, 교양강좌	.31	.01	.07	.61	.01	.20	.12	-.06
전시회, 전람회, 음악회	.27	.42	-.02	.56	-.16	.11	-.16	.12
휴식	.11	-.11	.18	.07	.80	-.07	-.05	.04
낮잠	.05	.18	-.05	.03	.77	.22	.05	-.21
TV 시청	-.11	.07	.37	-.20	.59	-.09	.16	.19
사회봉사, 사회단체참여	.30	-.06	-.03	.13	-.09	.74	.10	-.00
종교활동	-.18	.04	.17	.06	.14	.72	.09	.10
실내장식용 소품만들기	.19	.04	-.07	.16	.11	.01	.71	-.10
정원손질, 화초가꾸기	-.02	.02	.19	.04	.02	.16	.69	.10
특별음식이나 간식만들기	-.00	.44	.16	.07	-.12	-.00	.45	.14
라디오청취	.03	.06	-.05	-.11	.00	.13	.22	.71
신문, 잡지구독	.28	.11	.04	.13	-.05	-.05	-.18	.71
고유치	4.85	2.82	1.84	1.53	1.29	1.21	1.14	1.06
전체변량(%)	18.7	10.8	7.1	5.9	4.9	4.7	4.4	4.1